

‘백제 여인의 사랑 노래’...정읍사문화제 개최

28~29일 정읍사공원 일원
‘리브판타지쇼’ 등 볼거리 풍성
‘미스트롯’ 송가인 축하공연도



제30회 정읍사문화제가 28, 29일 이틀간 정읍사공원 일대에서 펼쳐진다. 정읍사공원 일대를 불빛이 넘쳐나는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정읍시 제공)

“천년의 사랑이 온다.”
제30회 정읍사문화제가 28, 29일 이틀간 정읍사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정읍사문화제는 현존 최고의 백제가요 ‘정읍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정읍사 여인의 숭고한 사랑과 아름다운 부덕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다.

28일 백제가요 정읍사의 발원지인 정해마을에서 채수 의례와 정읍사 여인 제례를 시작으로 부도상 시상, 기념식, 축하 공연, 각종 체험행사 등이 진행된다.

인기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특별 축하공연도 펼친다.

길구봉구, 진성, 윤하, 오로라, 뉴키드 등 가수들과 아이돌 그룹이 대거 출연해 무대를 수놓는다.

롯데월드 퍼레이드댄스 5팀은 연지아트홀과 상동 공감플러스센터, 정읍사공원 일대에서 기획 퍼포먼스로 볼거리를 제공한다.

시내 곳곳에서는 버스킹 전용 차량을 이용한 공연도 함께 펼쳐진다.

지난해 인기를 누리던 ‘정읍사 리브 판타지쇼’는 불꽃과 레이저, 판타지 서치라이트를 활용한 3D 조명을 도입해 축제기간

가을 밤하늘을 수놓는다.

‘LED소망풍선 날리기’와 ‘일루미네이션 포토존’, ‘소원등 달기’, ‘피아노와 함께하는 리마인드 프리포즈’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행사 당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부사랑 노래자랑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공연이 열린다. 현장에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동교부터 정읍사공원 일대에 꾸며질 경관조명은 ‘사랑’을 주제로 형형색색 LED조명등을 설치해 축제장을 찾는 이들에게 아늑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보다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참여 중심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번 정읍사문화제를 시작으로 깊어가는 가을 내장산 단풍축제와 구절초 꽃축제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지역 일자리 창출 협력 강화 로컬JOB센터·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협약

고창군로컬JOB센터(센터장 김희진)와 고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황지욱)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고창군로컬JOB센터는 지난 23일 고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이번 협약은 지역민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구인·구직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들 기관은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4대 목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성을 확보하고 구인·구직자 공동 발굴 및 일자리 정보제공, 취업알선 등 고창군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희진 센터장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두 센터가 협약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창군의 지역발전과 일자리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지욱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 4대 목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의 실현을 위해 고창군 로컬잡센터와 협력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로컬잡센터와 협력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해 고창군의 사회적 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순창 소스 중국 수출 ‘청신호’ 헤이룽장성 기업인협회장 등 방문... 고추장·소스 무역 상담

순창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소스 분야의 중국 수출 전망에 청신호가 켜졌다.

순창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국 헤이룽장성 기업인협회장 등 관계자 10명이 순창 고추장민속마을을 방문했다.

헤이룽장성기업인협회 소속 회사들이 제품 수입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에 순창군이 포함되면서 성사됐다.

방문단은 군의 현대 속에 고추장 민속마을의 생산라인을 눈으로 확인하며, 고추장과 소스 관련 무역 상담을 마쳤다. <사진> 방문단에는 요식업 프랜차이즈 및 식품회사의 회장도 포함돼 있어 순창 고추장과 소스 수출이 실제로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방문단은 공장형 고추장이 아닌 전통 방식 그대로 제조가 이뤄지는 전통 고추장에 큰 관심을 보이며 순창 고추장을 프리미엄 고추장으로 현지에 유통시킬 뜻을 내비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또 지난해 개발한 순창 소스 3종과 올해 순창 세계 발효 소스박람회에서도 선보일 ‘오라차차 소스’도 소개하며, 방문단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신제품인 ‘오라차차 소스’는 유산균으로 발효한 고추 발효물을 사용한 한국형 핫소스로, 매운 음식에 높은 효능을 보이는 중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순창=정영근 기자 jyg@

전북도, 탄소산업 세부 발전계획 수립

효성 1조원 투자협약 TF팀 구성...5년 단위 종합계획 실행
탄소산업발전위 운영...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도 가속화

전북도는 지난 22일 탄소산업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탄소섬유 전주공장 내 1조원 투자를 약속한 효성과 투자협약 태스크포스(TF)를 가동, 5년 단위로 탄소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실행할 계획이다.

1차 종합계획에는 탄소 소재 시장 다변

화, 소재 적용 분야 확대,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연구개발, 장비 구축, 상용화 기술 개발 일정 등이 담겼다.

전북도, 효성, 전주시, 탄소소재 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탄소산업발전위원회도 꾸려 탄소산업 전략 마련 및 지원, 효성의 투자 상황 점검 등을 맡는다.

전북도는 국회에 계류된 탄소소재법 제정을 서둘러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 유일의 탄소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탄소소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지난 2일 지정 승인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내 탄소 기업 70여개와 연구개발·지원시설 20여곳의 유치와 집적화에도 나선다는 목표도 세웠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 보건소-LH전북남부지사
정신건강증진·자살예방 협약

남원시 보건소(소장 이순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최근 LH 전북남부권주거복지지사(지사장 백동화)와 임대주택 입주민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LH 임대주택 내 정신건강 위기 입주민에 의한 공동생활 위협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절한 치료서비스 연계·지원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공동생활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남원시 LH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996세대 입주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증진 교육 및 인식개선 활동, 자살 및 우울증 예방관리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남원시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다양하게 제공할 시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학술대회 서울 고궁박물관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을 25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연다.

학술대회에서는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

교수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유바다 고려대 교수의 ‘동학농민혁명 격문, 기미독립선언서, 헌법전문 비교’, 장석홍 국민대 교수의 ‘동학농민전쟁과 3·1운

동의 관계’, 조재곤 서강대 연구교수의 ‘동학농민군 김형진의 의병 활동과 그 후’ 등 6편이 논문도 발표된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관계자는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졌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동부 센트레빌,상가
사정상 급매 임대

- 서구 풍암동 664-6번지, 1층 상가, 코너 800세대 APT 정문 앞
- 분양평수 50평, 실평수 36평 (기타 서비스 공간 10평 있음)
- 현재, 대형 할인마트 입점중
- 급매 - ~~9억~~ → 7억원
- 임대 -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350만원

덕남동,임야 매매
장단기 최고 투자 른

- 덕남동 임야,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